



나주 관광 10선 '금성관' (왼쪽 맨위부터 시계방향), '황포돛배', '빛가람호수공원-전망대', '느리자전망대', '천연염색박물관', '금성산'.



(나주시 제공)

### 왕년 개그스타 강진에 총출동

27일 코미디쇼 무료 공연 진행 강진아트홀 매표소 초대권 배부

강진군이 왕년의 코미디 개그 스타와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코미디쇼 '웃는날 좋은날' 공연을 오는 27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김학래의 진행으로 '웃으면 복이와요' 추억의 코미디 동영상 감상과 대폭적인 춤과 노래로 최연화가 쇼의 막을 올린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코메디 '김수환무 이름짓기'를 엄영수·이윤근·변아영·이선민·지영욱·김찬이 연기하며 '몽트12열차'를 함재욱이 보여준다.

김장준·배영만·전정희·김중하는 '결혼상담소'로 관객들을 폭소의 마당으로 이끌며 웃음과 건강을 주제로 엄영수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의 성대묘사를 구사한다.

오동광 오펜피는 만담으로 추억을 소환하며 트트계의 신사 현당이 트트메들리로 막을 내린다.

코미디쇼는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에서 제작하고 기획 엄영수, 연출 이윤근이 맡았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에 강진군이 선정돼 관람료는 무료이며 강진아트홀 매표소에서 초대권을 배부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관광 10선' 500만 관광시대 견인

시민·관광객 선호도와 역사·상징·상품성 반영 선정 역사문화·생태·경관 명소 10곳 관광 개발 역량 집중

나주시가 나주시 관광 10선을 선정하고 '500만 관광 시대' 견인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관광명소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선시대 대표적인 객사인 금성관 등 10곳을 '관광 10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주 관광 10선은 영산강 등대와 황포돛배, 빛가람호수공원-전망대, 느리자전망대,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분군이 포함됐다.

남평 드들강 솔밭 유원지와 불회사,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천연염색박물관, 금성산도 10선에 이름을 올렸다.

고대 마한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2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나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 경관을 자랑하는 생태 관광 명소가 고루 포함됐다.

평가와 선정은 문헌 및 한국관광데이터 인기 관광지 통계, 전문가 자문, 시민·관광객 온라인 설문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지에 오른 2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역사성, 상징성, 경관성 등 관광자원이 갖는 가치와 인지도, SNS 확산 가능성을 포함한 관광 상품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나주시는 대표 관광명소로 선정된 나주관광 10선을 중심으로 관광 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선정된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 완성도 높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500만 나주 관광시대 구현을 위한 권역별 홍보·마케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화순군 제2의 '안동 간고등어' 만든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본격 가동...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가공·상품화 기대

화순에 들어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제2의 '안동 간고등어' 상품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은다.

화순군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정우F&B(대표 장영진), (주)화순수림맛갈비(대표 최주승)와 운영협약 및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해양수산부 주관 '2016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0억원을 지원받아 조성됐다.

수산식품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연구시설 1개 동과 수산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 2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정우F&B는 연구시설 운영협약을 통해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정부의 수산식품 R&D공모를 수행할 예정이며, 가공시설은 두 업체가 임대계약을 체결해 수산식품 가공과 상품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바다와 인접해있지 않은 내륙지방이라 상상한 해산물을 접하기 힘든 안동에서 '안동 간고등어'라는 유명 상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비슷한 환경의 화순에서도 고부가 수산식품을 개발, 가공, 상품

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군민의상·명예군민증 대상자 선정

담양군이 올해 담양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군민의 상 분상에는 부문별 4명이 선정됐다.



왼쪽부터 권창희, 임흥균, 박일주, 국민홍 수상자.

사회복지 부문 수상자인 권창희 회장은 30년 간 1500여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 촬영용 메이크업 봉사를 하며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교육·문화 부문 수상자인 임흥균 회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익명으로 2억 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4억여 원을 등불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2012년엔 사회복지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체육진흥 부문 국민홍 회장은 지역 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우수 선수 발굴과 실전훈련을 통해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산업경제 부문 박일주 회장은 포도 명인으로서, 고품질 포도재배 농법을 개발, 농가 소득에 이바

지하고 유기농 포도 와인을 개발해 '고서와인'이라는 지역특산물로 상품화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특별상에는 ▲이명은 담양군복지재단 이사 ▲고길석 수완센트럴병원 대표원장 ▲조미숙 재성남담양군향우회 부회장 ▲송진욱 ㈜홍진기공 대표 ▲나경복 전 배구 국가대표 ▲나상호 선수(FCS서울, 카타르월드컵 국가대표) ▲이성백 재경담양군향우회장 ▲김남현 재경담양군향우회 사무국장 등 8명이 선정됐다.

명예군민증은 서영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담양이사장, 이영선 ㈜중앙청과 부사장, 장호직 무등생태요양병원 이사장, 조규열 한미요양병원장, 조병래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장에게 수여됐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홍길동무' 장성 100억 송이 봄꽃 향연 속으로

황룡강변·홍길동테마파크 일원서 내달 19~21일 꽃길축제

"장성 황룡강변 10리 길 따라 펼쳐지는 100억 송이 봄꽃 향연에 초대합니다."

장성군은 황룡강과 홍길동테마파크 일원에서 오는 5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황룡강(홍·洪)길동무 꽃길축제'가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축제 꽃길의 시작점인 문화대교 인근에는 금빛과 주황색 메리골드, 순백색 마가렛, 일일초가 조화롭게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수국정원은 이국적인 모양의 루피너스와 디지털리스, 노란색 알리섬으로 꾸며져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서삼장미터널은 무리지어 피어난 작은 꽃들과 귀

여운 베풀며, 선홍빛 사루비아가 화려함을 더한다. 아이러브엘로우시티정원과 유엔아이기든에선 열대·아열대 지방 관광용 식물도 잘 알려지지 않고 이 감상 재미를 안긴다.

축제의 주무대인 생태공원은 안젤로니아, 사루비아, 백일홍, 메리골드, 일일초 등 황룡강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봄꽃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통해 많은 호평을 받았던 야간 경관은 한층 아름다운 조명시설로 관람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장성 맛집이 총출동한 먹거리 장터와 명품 농특

산물 판매대 운영을 비롯해 홍길동 테마파크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개막식은 5월19일 오후 7시, 황룡강변 주무대에서 열린다.

행사 이후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장성군은 축제가 끝나면 29일까지 나들이객 맞이 기간을 운영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황룡강에서 함께한 봄날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100억 송이 봄꽃으로 아름다운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에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황룡강(홍·洪)길동무 꽃길축제'가 황룡강과 홍길동테마파크 일원에서 오는 5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황룡강변 꽃길. (장성군 제공)

## 함평군 '벼농사 첫걸음' 종자소독 기술지원 나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올바른 벼씨 종자소독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에 나선다.

올해 벼 보급종은 소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카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벼씨 종자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종자 소독에 앞서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해 충실한 벼씨를 골라내야 한다. 메벼(물 20 l + 소금 4.24kg)와 찰벼(물 20 l + 소금 1.36kg)를 소금물에 3~10분 이내로 담가 가라앉은 벼씨만 헹구내 사용한다.

벼 종자 소독 방법은 온탕소독과 약제 침지소독이 일반적이다.

함평의 못자리 설치 시기는 이달 말에서 5월 상순이 적기이다.

튼튼한 묘를 기르기 위해서는 육묘 기간 육묘장 내 온도를 낮추는 25℃, 밤에는 15℃ 전후로 유지해야 한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한해 농사의 절반이 종자소독과 건전 육묘관리에 있다"며 "벼 육묘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강진군, 다산청림연수원 등 2곳 생활밀착형 숲 조성

방문객 휴식·힐링 공간 제공

강진군이 산림청 주관 '생활밀착형 숲'을 다산청림연수원·다산박물관에 조성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녹색공간 확충 및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조성은 목적이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통해 연수원과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휴식과 심신 안정의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산림청 정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사

업비 5억 원을 확보해 군동면 호계리 종합운동장에 생활밀착형 숲 1곳을 조성했다.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다산청림연수원, 다산박물관에 새롭게 2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